

## "잘 봐, 언니들 경기다"

세 가지 시선에서 바라본 SBS <골 때리는 그녀들>

강지윤

### 1. 들어가며

올여름,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짜릿함을 안겨준 올림픽 여자 배구 경기를 우린 여태 기억한다. 많은 이들은 메달 그 이상의 환희에 젖었고, 빛나는 추억들을 잊지 못해 한동안 방송가에서도 여자 배구 열풍이 일었다. 거기에는 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력도 한몫했지만 우릴 가슴 뛰게 했던 건 김연경 선수의 지도력을 필두로 한 완벽한 팀워크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다. 한일전만 그랬다면 '운이 좋았다' 했을 것이다. 터키전에서 폴세트 점전 끝, 마지막 득점을 대한민국이 꽂아 넣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여자 배구팀의 승리는 기적이 아닌 선수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여기, 또 하나의 감동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든, 아주

‘골 때리는’ 여자들이 있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에 익숙했던 이들은 이제 필드 위 가로등 조명을 받으며 거침없이 내달린다. 방송 도중, 공들인 화장이 땀에 젖어 무너지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한 배우는 드라마 촬영을 하러 가서 툼툼이 불을 찬다. 또 어떤 모델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받는 와중에도 오로지 다음 경기 걱정뿐이다. 출연자들이 과몰입한 게 아닐까 걱정이 들지만, 어느새 실제 경기를 시청하는 양 손에 땀을 쥐며 과몰입하는 나를 느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뛰는 모습을 보노라면 골 때리다 못 해 보는 이의 심장을 때릴 만큼 몽클해지고,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사실이 내 뼈를 때린다.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이 이토록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시선에서 바라보며 담론해 보고자 한다.

## 2.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No pain, No gain”, 즉 “노력 없이 대가도 없다”라는 말이 불후의 격언이던 시절이 있었으려다. 개탄스럽게도 지금은 통용되기 어려운 말이 됐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층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얼룩져 분노와 혐오가 폭발하고 있다.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던 기성세대의 외침은 외려 꼰대들의 ‘라떼’로 전락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사회 시스템 구조상 더 이상 기성세대가 전유한 전통적인 성공 패러다임이 통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엔 관리자가 된 현 기성세대는 소싯적 성장일변도의 경제체제를 겪은 사람들이다. 일한 만큼 가져가고, 노력한 만큼 빛을 누렸다. 하지만 지금의 MZ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빛에 짓눌리는 이들이 수두룩

하다. 부와 가난은 강하게 대물림되기에 사실상 계층이동 또한 막연해졌다. 청년들은 본인들의 노력이 물질적 풍요로 보답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내 ‘노력하기’를 포기하게 되었다. 연애부터 결혼, 출산까지 모두 포기하는 3포세대도,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포기당한 내 집 마련의 꿈도 그들에겐 냉혹한 현실이다.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이 회사에 몸 바쳐 일할 패기와 근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청년들은 승진에 목매고 근로소득에 아등바등 대는 것보다 적당히 살면서 주식, 코인 같은 자본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게 낫다고 답한다. 계층 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지금의 사회는 노력과 땀방울의 가치가 이토록 심각하게 폄훼당하고 있다.

〈골때녀〉의 선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보여준다. 출연진은 모두 개그맨, 모델, 배우, 국가대표 가족, 외국인으로,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뛰어난 신체적 역량을 타고난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일로 시작했겠지만, 이들은 훈련과 경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톱이 빠지고 인대가 늘어나며 눈이 퉁퉁 부어 정작 본업을 하기 어려울 지경인데도 사력을 다해 필드를 뚫는다. 매 경기 1승씩 거머쥐는 것, 우승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전력 질주한다. 오죽하면 매스컴에서도 올림픽 야구 대표팀에게 〈골때녀〉 선수들이 가진 열정 반만이라도 가지라고 했을까. 심지어 FC 구척장신 팀의 감독을 맡은 최용수 감독은 본인이 최근까지 사령관으로 있던 프로축구팀을 향해 구척장신의 멘탈과 근성을 본받아 경기에 임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골때녀〉 선수들의 노력과 땀방울은 전혀 헛되지 않았다. 방송 초반에는 볼 컨트롤은커녕 자기 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선수들이었

다. 하지만 회 차를 거듭할수록 제법 기술도 늘고 나름대로 전략도 짜더니 이내 완전히 한 팀이 되어 최고의 단합력과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여도, 그래도 아직은 노력하면 된다는 마음가짐과 너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위로가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통한 것이다.

### 3. 이토록 애뜻한, 여성들의 연대

과거 예능에서 소비되었던 여성의 캐릭터를 떠올려 보면 지금과 사뭇 다르다. 2000년대 말, 가상 결혼 프로그램에서 ‘센 언니’ 캐릭터를 구축하며 예능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했던 연예인이 있었다. 툭툭 내뱉는 날 선 말투, 짙은 아이라인과 화려한 옷차림은 센 언니의 상징이었고, 그녀는 당시 대중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혹 다가온 그야말로 ‘신데렐라’였다. 얼마 전 <놀면 뭐하니>가 프로젝트 그룹으로 제작한 ‘환불원정대’의 콘셉트 이미지를 이때 캐릭터에서 따왔고, 그 시절 복고 감수성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며 힙합이 대중음악의 주류가 되고 음원 차트를 휩쓸게 될 무렵, 각종 힙합 오디션과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제작되었다. 개중 여성 래퍼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랩을 하는 방송이 반향을 일으키며 센 언니 콘셉트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목구멍을 톡 쏘는 탄산음료는 한순간 쾌락을 맛보게 할 수는 있어도 매일같이 마시기엔 부담스럽다.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보여준 센 언니 캐릭터는 장기적으로 대중에게 피로감과 거부감을 쌓이게 했다. 센 언니라는 단어 하나에 행동과 말투의 무례함이 전부 묶인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 몇 년 사이에 남녀 간 젠더 갈등

이 움트기 시작할 때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까지 회자되며 여성들끼리 감정싸움을 부추기고, 여성들은 진정한 연대를 이룰 수 없다고 치부된 적도 있었다. 쉐 언니라는 캐릭터는 처음에 단순히 방송용 이미지로 형성되었을지 몰라도 나아가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못 여성들의 정체성 근간마저 뒤흔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쉐 언니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정 활동을 통해 조금 다른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본업도 잘하지만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애와 상대방을 향한 존중을 드러낼 줄 아는 멋진 언니가 바로 그것이다. <골때녀> 출연진은 모두 각자의 팀을 위해 상대방과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룬다. 우리 편의 승리라는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 과정에서 팀 내 결속을 다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더해졌다. 할 때는 하는 악바리 근성에 독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실제 성격이 순하고 부드러우면 덤으로 반전 매력을 자아낸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도 댄서들끼리 배틀을 벌이며 실력을 드러내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그려졌다.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한껏 언니 매력을 뽐어낸다. 그렇다고 마냥 쌈닭처럼 치고받거나 경계하진 않는다. 서로의 노력과 재능을 충분히 존중하되,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포용력은 지금껏 쉐 언니의 프레임에 가려졌던 ‘진짜’ 언니들의 미덕으로 비로소 드러난다. <골때녀>는 그저 같은 분야라서 팀으로 묶인 선수들끼리 축구라는 공동의 목표로 만나, 깨지고 아파하고 치유하는 휴먼 드라마를 그려낸다. 각본이 없기에 진심으로 울림을 주었고, 함께 나아가기에 한 뼘 더 성장했다. 우리는 어찌면 이토록 애뜻한 여성들의 연대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을지 모른다.

#### 4. 판세를 뒤흔든 언더독의 반란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는 편이다. 시즌이 시작되면 관중석이든 방구석이든 선수 유니폼을 입고 응원가를 부르며 목이 터져라 자기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은 한국인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과 달리, 의외로 방송가에서 스포츠 소재의 방송을 보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능 시장은 줄곧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왔는데 그 소재는 육아, 쿡방, 리얼리티 관찰 예능까지 시시각각 변하면서도 정작 스포츠 소재는 단 한 번도 주류에 선 적이 없었다. 드라마 쪽에서도 스포츠 소재의 드라마는 투입하는 제작비 대비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아 만들기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2019년에 <몽처야 찬다>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시즌2와 스펀오프를 양산해 스포츠 예능의 신호탄을 쏘는 듯했다. 같은 해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몇 년 동안 제작이 불발되다가 극적으로 SBS에서 제작, 편성이 확정되어 제대로 흥륜을 친 바 있다. 최근에는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서 방송사마다 프로골퍼와 연예인들이 한 조가 되어 경기하는 골프 방송이 성황리에 방영 중이다. 마침내 올초 <골때너>를 설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론칭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자 몇 달 뒤 정규 편성되었는데 그 결과는 알다시피 매우 폭발적이었다. 심지어 마지막 회 차에서 <골때너> 시상식에 SBS 사장과 예능 본부장이 등판해 “이렇게 목숨 걸고 할 줄 몰랐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던 우승 상금 1000만 원 지급과 더불어 참가 팀 전원에게 격려금을 쏘며 현장에서 바로 시즌2를 확정·발표했다. 웬만하면 시즌 사이에 재정비를 위한 휴식시간을 가질 법도 한데 바로 다음 주부터 시

준2를 방영할 것임을 예고했다. 철저하게 자본의 흐름과 대중성의 척도를 좇아가는 방송사가 보여준 파격적인 행보는 그야말로 <골때녀>의 화제성과 파급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했을 때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확신한 사람은 단연코 없었을 것이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예능에, 거기다 초보자들을 데리고 축구를 한다? 대부분은 여성과 축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재미와 감동 모두를 놓치고 시도‘만’ 좋았던 피작으로 남을 게 뻔할 거라는 혹자의 우려를 뒤로하고, <골때녀>는 단숨에 상한가를 쳐버리며 예능계에서 또 하나의 섹터를 형성하여 관세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방송사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종전에 언급했듯이 예능이건 드라마건 스포츠 소재는 장르의 특성상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다. <골때녀>의 경우 팀별 리그전을 거쳐 결승행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총 6개 팀으로 편성했다. 이는 방송가 예능 사상 가장 많은 여성 고정 출연자를 등장케 한 결과를 낳았다. 이 외에도 풋살장과 팀별 록커룸 제작에 공을 들여 경기 완성도를 높였고, 2002 월드컵 주역의 선수 출신 감독을 섭외해 출연진의 신체적·기술적 능력치를 업그레이드시켰다. 또 캐스터로 이수근과 배성재를 영입하며 경기 몰입력을 강화했고, 예능적인 요소까지 가미하여 완벽함을 더했다. 무조건 대박 친다는 확신을 가지진 못했지만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방송사에서 제대로 판을 깔아주었기에 이른바 ‘짜치는’ 공놀이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단연 출연진이 보여준 진정성이다. 많은 사람이 스포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감동하는 까닭은 주인공의 기량이 처음부터 뛰어났고 그 능력치로 인해 희열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다. 조금은 부

죽하고 서둘러도 끝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동료와의 연대감에서 감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능,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에 각자의 삶을 투영한다. 사람들은 결말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며 부침을 겪는다. 그에 반해 적어도 엔딩이라는 게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노력이 일으키는 긍정적인 영향력,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도전 의식을 보여준다. 출연진이 촬영을 떠나 축구를 진심으로 대하고 열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방송을 보는 이들은 그 자체만으로 프로그램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 5. 맺으며

하나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다. 인기가 더욱 많아지면 화제성을 낳고 파급력이 세진다. 이 단계마저 넘어서면 시청률을 떠나 문화의 척도가 된다. 단순히 ‘그 프로그램이 재미가 있어서’ 혹은 ‘감동적이어서’라고만 단정 짓기는 어렵다. 방송 프로그램은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반영하고, 시대의 요구에 응한다. <골때녀>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진 지 벌써 2년째다. 많은 이들이 사는 게 점점 팍팍해진다 고, 힘에 부친다고들 한다. 거기다가 이 사회는 끝없는 논란과 분쟁을 야기하며 늘 치열하게 돌아간다. 정신을 바로 잡지 않으면 내 정체성이 흔들린 채 그저 부유할지 모른다. 바야흐로 중심을 똑바로 잡고 살아내기 힘든 세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 <골때녀>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어찌



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 노력, 공감 능력이 어서 회복되기를 종용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를 알면 겸손해지고, 너를 알면 존중이 생기고, 관계를 알면 사랑이 생긴다. <골때녀>가 그러했듯이 지쳐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다시 뜨거운 바람이 불기를 희망한다.